‘검은 월요일’ 증시 속수무책…코스피 8000 붕괴

8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2.50p(1.38%) 내린 8048.09로 출발해 676.18p(8.29%) 내린 7484.4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1분 동안 8% 이상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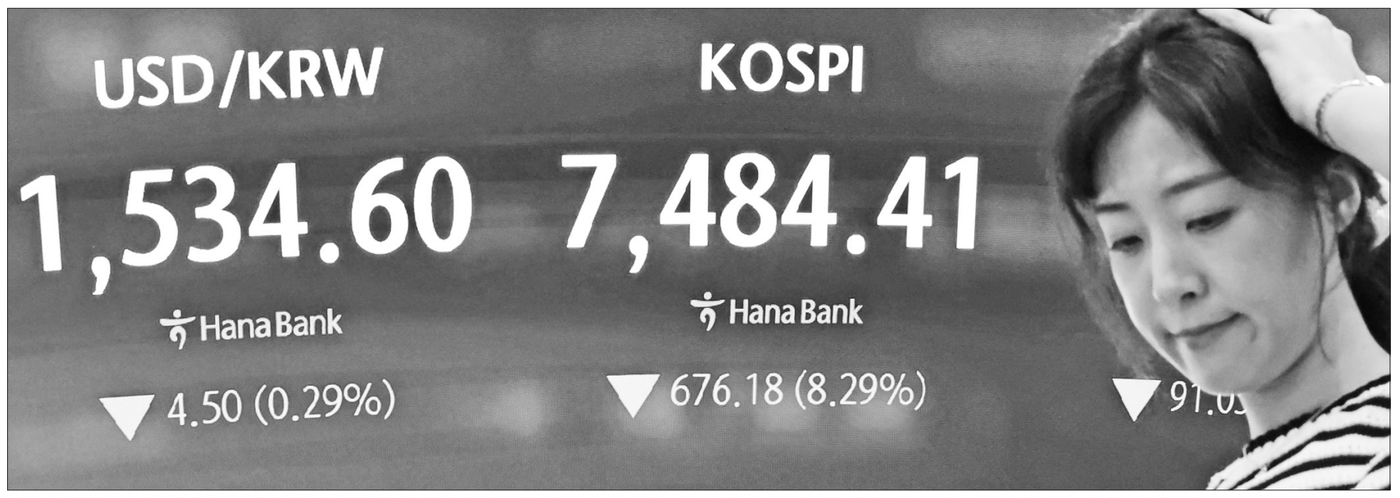
급락장에 서킷 브레이커와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되기도 했다. 장중 한때 7442.73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3540억원, 1조627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개인이 홀로 1조7630억원 순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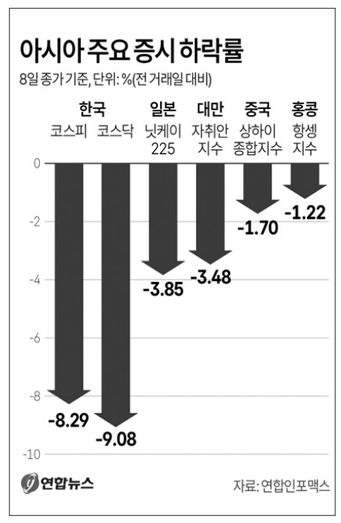
주가 급락의 주된 배경으로는 지난주 브로드컴 실적발표를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정점통과)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 등이 꼽힌다.

특히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발표된 미국 5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2000명 증가해 컨센서스(8만명 증가)를 크게 웃돈 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이란 전쟁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인 만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 까닭이다.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676.18p(8.29%) 내린 7484.41에, 코스닥은 91.05p(9.08%) 내린 911.39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3개월 만에 동시 발동
환율 장중 1555원·국고채금리 2년7개월만 최고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10.18%)와 SK하이닉스(-7.68%)가 급락하면서 두 종목의 주가가 각각 30만원과 200만원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어 SK스퀘어(-11.13%), 현대차(-8.71%), 삼성전기(-5.29%), LG에너지솔루션(-6.16%)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내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호재’가 있는 NAVER(9.20%)와 SK텔레콤(0.28%) 등 두 종목만 주가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42.83p(4.27%) 내린 959.61로 시작해 91.05p(9.08%) 내린 911.39로 마감했다.

지수가 1000선을 내주면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양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 모두가 발동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4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980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50억원, 1460억원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6.1원 오른 1555.2원으로 출발했다. 금융위기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외환당국이 오전 11시45분께 구두 개입에 나서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를 재개하면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환율은 오후 2시 18분께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전날보다 4.1원 내린 1535.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야간거래에서는 153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날 주간거래 장중 변동 폭이 20원이 넘어서 지난해 12월 26일(24.8원) 이후 가장 컸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달러도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110 수준이다. 지난 5일 두 달여 만에 100선을 넘어선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채권 금리도 치솟았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7bp(1bp=0.01%p) 오른 3.947로, 지난 2023년 11월 2일(연 3.979%)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가상자산 역시 약세를 지속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0.86% 내린 9461만원이다. 지난 2일 1억원 아래로 떨어진 뒤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이날 동반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는 각각 3.85%와 3.48% 내렸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중국 심천종합지수는 1.70%와 3.14%씩 하락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1.22%가 내렸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선운다사로움 잔여 20세대 공급

청약통장 무관·전국 무주택자 대상 100% 추첨
전용 49~84㎡ 다양한 평형 공급…15~16일 접수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선운지구다사로움’ 아파트 미계약 잔여세대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재공급하는 물량은 총 20세대다. 전용면적별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49㎡ 15세대를 비롯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76㎡ 2세대, 84㎡ 3세대로 구성했다.

이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가 세대를 법령에 따라 재공급하는 절차다.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8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도 미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주택자를 포함한 선착순 동·호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분양 가격은 49㎡형은 1억8100만~1억9250만원, 76㎡형 최고 2억7850만원, 84㎡형 최고 2억9550만원 수준이다. 대금은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의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2026년 9월 28일)에 완납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사업주체의 임의 선정을 배제하고 100%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세대와 공급 세대의 9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동시에 선정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5~16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PC·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19일 발표한다. 이후 22~24일 서류접수, 26~29일 계약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지된다.

또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 그대로 인계되므로, 도배·장판 등 내부 보수나 시설물 노후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청약 접수 전인 오는 12일 지정된 샘플 세대를 개방한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무순위 공급은 분양전환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에 재공급하는 절차”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역 내 무주택 사회 보호계층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양상의, 철강산업·고용위기 선제 대응

3100명 근로자안심패키지 지원금 전액 지급 완료

광양상공회의소는 철강업종 및 연관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광양)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사업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이 완료된 ‘철강산업(광양)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사업은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5106명의 신청 민원을 접수 받아 우선 순위요건에 충족한 3100명에 대해 지원금 전액을 지급했다.

상공회의소는 또 기업 재정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은 최대 기업당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 5월 말 신청마감을 완료하고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철강산업과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기업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퇴직 예정 교직원 대상 연수
사학연금, 내일까지 제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은 8일부터 10일까지 정년(명예) 퇴직 예정 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2026년 제1차 퇴임대비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직원들이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사학연금제도, 복지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교직원공제회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자산관리·절세 특강, 저속노화 건강법 강의로 구성된다. 노후 준비와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교의 시간도 마련된다.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생 3막을 앞둔 교직원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퇴임대비 연수는 올해 약 66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서울에서 각 2회씩 총 4회 실시되며, 연수 참석이 어려운 교직원을 위해 지역별 퇴임대비 설명회와 공단 통합복지플랫폼(welfare.tp.or.kr)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신협중앙회는 최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신협 차세대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신협, 차세대 프로젝트 추진체계 본격화

‘차세대 추진단’ 발대…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신협중앙회는 최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신협 차세대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신협 차세대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공식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준비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향후 업무·채널·인프라 등 주요 영역별 과제를 점검하고, 신협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협 차세대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핵심 사업이다. 신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금융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IT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회원조합의 업무 효율성과 조합원 금융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조합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컨설팅과 데이터 정비 등 선행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된다. 신협은 차세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를 체계화한 뒤 약 3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9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단계별 구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업무·채널·인프라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금융 기반 고도화에 투입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농어촌공사·농협, 어린이 환경교육

사내 어린이집 원생 대상…자원순환 가치 체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최근 전남 나주 해파란 어린이집 원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어촌·수산·해양 분야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 어촌수산처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지점이 공동 기획한 ESG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바다의 날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해양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해양 환경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배우고, 폐자원으로 만든 배를 물에 띄워보는 ‘시냇물 경주대회’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와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노력과 함께 미래세대가 환경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바다의 날을 맞아 최근 전남 나주 해파란 어린이집 원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어촌·수산·해양 분야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